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문숙^{1*}, 이형일², 이정주², 윤민숙³, 김상현³

¹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²선문대학교 체육학과, ³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Effects of Participation in Korean Traditional Dance on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Married Immigrant Women

Moon-Sook Lee^{1*}, Hyung-II Lee², Jung Joo- Lee², Min-Sook Yoon³
and Sang-Hyun Kim³

¹Department of Sports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of SunMoon University.

³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2009년 현재 대전,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이주여성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실험집단은 3개월간의 한국무용프로그램에 참가하고 통제집단은 한국무용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집단별 각각 24명과 30명을 선정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Sandhu and Asraba(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와 이를 번역한 이승중(1995)의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 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한 신근영(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생활만족도 측정은 Lehman(1982)의 생활만족도 척도(Life Satisfaction Scale)를 수정 보완한 백은령(2003)의 척도를 이주민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한 최현(2008)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평균차 검증을 통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한국전통무용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켰으며, 둘째, 한국전통무용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증가시켰다. 따라서 한국전통무용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Korean traditional dance on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married immigrant women. The subjects of this quasi-experimental study were two folds as one experimental group and one control group. The subjects of experimental group were randomly composed of Korean traditional Dance. Contrary to this, the subjects of control group included those who neither participated in Korean traditional dance. All statistical analyses and description methods were computed by SPSS window 14.0. The discriminant analysis was used to find changes of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ANC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Frist, there was founded that Korean traditional dance program group significantly decreased their acculturative stress. Second, there was founded that Korean traditional dance program group significantly improved their life satisfaction. It is concluded that Korean traditional dance program is directly and strongly cause and effect relations with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married immigrant women.

Key Words : Korean Traditional Dance, Acculturative Stress, Life Satisfaction, The Married Immigrant Women

*교신저자 : 이문숙(fesaikho@hanmail.net)

접수일 11년 04월 21일

수정일 (1차 11년 05월 10일, 2차 11년 06월 08일)

게재확정일 11년 06월 09일

1. 서 론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조사에 의하면 전세계 인구에서 35명 중 1명은 국제이주자에 해당한다[1]. 이와 같은 국가적 이주민 증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는 한국은 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한국이 실제와는 다른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2].

이것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시대에 다각적인 조망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제결혼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 외국인 남성 노동이주근로자보다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1990년 619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28,163건으로 급증하였다[3]. 따라서 다문화시대의 새로운 문화형성 주체자로서 또한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결혼 결혼이주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과 이주를 동시에 선택한 상황에서 새로운 한국 문화에 적응해야 함은 물론 새로운 가족 관계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지니게 된다[4]. 또한 이들은 문화적 차이와 그들을 바라보는 편견 및 불평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며 자신들의 존재의미와 새로운 정체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며, 이를 경험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불안감이나, 우울, 소외감, 정체감 혼란과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5]. 이와 같이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적응하면서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문화적응스트레스라고 한다[6].

실제로 이러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이주자들이 이주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로 적응하면서 사회적 지지의 상실, 차별 및 편견에 따른 절망감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러한 문화적 스트레스는 결국 결혼이주여성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생활만족은 개인이 선택한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기대 및 목표의 성취 정도에서 느끼는 충족감 정도를 말한다[8]. 이러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최근 유럽 국가간 이주민의 생활만족도를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생활만족도는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

적 접촉, 사회적 지원으로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9].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사회적 관계망에 개입시킴으로써 다양한 환경자원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기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10].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낮은 환경에서의 외로움, 문화적 충격, 주변의 물이해와 편견 등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들이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데 문화예술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11]. 또한 결혼이주여성들 역시 이질적 문화권에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게 되면서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12].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이질적인 문화의 차이를 언어의 장벽이 없는 움직임 언어, 즉, 무용교육을 통하여 이들을 포용하고 더불어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13].

민족정신의 혼이 깃 들어 있는 한국전통무용은 시대, 지역, 생활에 따라 변화하면서 인간이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살아 왔는가를 대변해 주는 문화이다[14]. 따라서 우리의 전통무용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적극적 문화적응을 위한 의미 있는 방법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용교육의 경험은 심리적 건강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 인생에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15]. 또한 문화교육으로서 무용이라는 매체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공통된 주제를 갖고 의사소통을 하고, 민속춤을 통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거나 참여과정을 겪으며 가족의 적극적 지지를 받음으로 가족애를 확인하는 귀중한 경험을 이룰 수 있다[16].

따라서 사회복지체제 등의 제도적 관점에서 문화 공유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자국문화와 한국문화 사이에서 문화적으로 배려 받을 수 있으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절실하다. 이러한 문화교육은 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 가족 간에 2차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실증적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전통무용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실험집단인 한국전통무용 프로그램 참가와 통제집단인 한국전통무용 프로그램 비참가로 구분하였다. 2009년 현재 대전,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실험집단은 3개월간의 한국무용프로그램에 참가하고, 통제집단은 한국무용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결혼이주여성들로 집단별 각각 24명과 30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분포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 변인 | 집단 | | | 전체 |
|-------|---------|-----|----|----|
| | 참가 | 비참가 | | |
| 국적 | 중국 | 9 | 11 | 54 |
| | 일본 | 3 | 5 | |
| | 베트남 | 8 | 10 | |
| | 필리핀 | 4 | 4 | |
| 나이 | 18-20 | 4 | 6 | 54 |
| | 21-24 | 8 | 13 | |
| | 25-28 | 8 | 9 | |
| | 29세 이상 | 4 | 2 | |
| 가계 소득 | 100만원미만 | 2 | 4 | 54 |
| | 100-200 | 9 | 10 | |
| | 200-300 | 11 | 13 | |
| 결혼 기간 | 300만원이상 | 2 | 3 | 54 |
| | 2년 미만 | 4 | 5 | |
| | 2-3 | 5 | 9 | |
| 기간 | 3-5 | 11 | 13 | 54 |
| | 5년 이상 | 4 | 3 | |

2.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자기평가기입법에 기초한 구조화된 설문지이다.

2.2.1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Sandhu and Asraba(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와 이를 번역한 [17]의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 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한 [1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개 하위영역 2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신뢰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구성내용과 신뢰도 분석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for acculturative stress scale

| 구분 | 문항수 | Cronbach's α |
|---------|-----|--------------|
| 지각된 차별감 | 6 | .809 |
| 향수병 | 3 | .761 |
| 지각된 적대감 | 4 | .684 |
| 문화충격 | 4 | .718 |
| 두려움 | 3 | .769 |

2.2.2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측정은 Lehman(1982)의 생활만족척도(Life Satisfaction Scale)를 수정 보완한 [19]의 생활만족척도를 이주민에 적합하도록 총 6개 하위영역으로 총 23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한 최현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20]. 각 하위영역별 신뢰되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생활만족 척도 구성내용과 신뢰도 분석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for life satisfaction scale

| 구분 | 문항수 | Cronbach's α |
|-------------------|-----|--------------|
| 생활환경 만족도 | 3 | .808 |
| 의식경제 만족도 | 4 | .621 |
| 친구 및 대인관계 | 5 | .877 |
| 신체 및 정신건강 | 3 | .846 |
| 직업 및 하루일과 | 3 | .760 |
| 자아감 및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 | 5 | .824 |

2.3 연구설계 및 조사절차

3개월간의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집단을 대상으로 변인별 사전 사후 측정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통제집단으로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 비참가 집단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현장연구로서의 특성상 실험집단인 한국전통무용 프로그램 참가와 통제집단인 비참가를 무선할당하거나 배경변인별로 완벽하게 짝짓기(matching)하는 통

제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사실험설계 (quasi-experimental design) 방법 가운데 비동질 통제집단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를 적용하였다.

2.4 자료처리방법

1차(사전)와 2차(사후)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통계프로그램 이용하여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 참가집단의 사전 사후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생활만족의 변화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차 검증을 통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 과

3.1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 참가집단과 비참가 집단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변화를 측정후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4는 집단별 사전·사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측정치를 평균 및 표준편차로 산출한 결과이다.

표 4에 제시된 집단별 사전 사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평균을 보면,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 참가집단이 비참가 집단에 비해 사전 문화적응스트레스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사후 문화적응스트레스에는 이러한 차이의 폭이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집단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사전 사후 평균 및 표준편차

[Table 4]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pre and post acculturative stress by groups

| 집단 | n | 사전 | | 사후 | |
|-------|----|------|-------|------|------|
| | | M | SD | M | SD |
| 참가집단 | 24 | 3.84 | 6.15 | 2.11 | 9.23 |
| 비참가집단 | 30 | 3.65 | 7.09 | 3.96 | 7.48 |
| 전체 | 54 | 3.75 | 27.97 | 3.04 | 8.44 |

이러한 집단별 사전 사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 참가를 독립변인으로, 사전 문화적응스트레스 측정치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사후 문화적응스트레스 측정치를 종속변인으로 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집단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공변량분석 결과
[Table 5] ANCOVA for acculturative stress

| 변산원 | SS | df | MS | F | P |
|--------------------|----------|----|-----------|----------|------|
| 공변량변인 | | | | | |
| (사전 문화적응스트레스) | 162.867 | 1 | 162.867 | 11.445 | .023 |
| 주효과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참가) | 122510.6 | 1 | 122510.6 | 2815.228 | .000 |
| 설명변량 | 122690.9 | 2 | 61345.470 | 1409.686 | .000 |
| 오차 | 7136.809 | 52 | 43.517 | | |
| 전체 | 129827.7 | 54 | | | |

Multiple R² = .945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단간에 사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집단간 사전 차이를 통제된 교정된 사후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하위영역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문화적응스트레스 하위요인별 공변량분석 결과
[Table 6] ANCOVA for subfa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 하위변인 | 변량변인 | | 주효과 | | MR ² |
|---------|-------|------|----------|------|-----------------|
| | F | p | F | p | |
| 지각된 차별감 | 6.625 | .011 | 1307.617 | .000 | .888 |
| 향수병 | 3.605 | .042 | 1485.655 | .000 | .901 |
| 지각된 적대감 | 4.759 | .031 | 1485.655 | .000 | .901 |
| 문화충격 | 4.552 | .034 | 1683.612 | .000 | .912 |
| 두려움 | 3.455 | .044 | 1482.813 | .000 | .900 |

따라서,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 참가집단은 비참가 집단에 비해 실시 후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 정도가 유의하게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 참가에 의해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2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 참가집단과 비참가 집단 간 생활만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생활만족의 변화를 측정후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으며 집단간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은 집단별 사전 사후 생활만족의 측정치를 평균 및 표준편차로 산출한 결과이다.

[표 7] 집단별 생활만족의 사전 사후 평균 및 표준편차
[Table 7]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life satisfaction

| 집단 | n | 사전 | | 사후 | |
|-------|----|------|------|------|-------|
| | | M | SD | M | SD |
| | | 참가집단 | 24 | 1.73 | 3.62 |
| 비참가집단 | 30 | 2.01 | 2.42 | 2.22 | 2.20 |
| 전체 | 54 | 1.87 | 3.12 | 3.10 | 11.94 |

표 7에 제시된 집단별 사전 사후 생활만족의 평균을 보면,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 참가집단이 비참가 집단에 비해 사전 생활만족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사후 생활만족에는 이러한 차이의 폭이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집단별 사전 사후 생활만족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 참가를 독립변인으로, 사전 생활만족 측정치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사후 생활만족 측정치를 종속변인으로 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따르면, 집단간에 사전 생활만족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집단간 사전 차이를 통제된 교정된 사후 생활만족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하위요인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8] 집단간 생활만족의 공변량분석 결과
[Table 8] ANCOVA for life satisfaction

| 변산원 | SS | df | S | F | P |
|-----------------------|-----------|----|-----------|----------|------|
| 공변량변인 (사전 생활만족) | 122.725 | 1 | 122.725 | 13.044 | .000 |
| 주효과 (한국전통무용 참가) | 22138.022 | 1 | 22138.022 | 2353.060 | .000 |
| 설명변량 오차 | 22141.860 | 2 | 11070.930 | 1176.734 | .000 |
| | 1542.942 | 52 | 9.408 | | |
| 전체 | 192333.0 | 54 | | | |

Multiple R² = .935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 참가집단은 비참가 집단에 비해 실시 후 생활만족 변화 정도가 유의하게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전통무용프

그램 참가에 의해 생활만족 정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9] 집단간 생활만족 하위요인별 공변량분석 결과
[Table 9] ANCOVA for subfactors of life satisfaction

| 하위변인 | 공변량변인 | | 주효과 | | MR2 |
|-----------|--------|------|----------|------|------|
| | F | p | F | p | |
| 생활환경만족도 | 8.073 | .000 | 124.876 | .000 | .755 |
| 의식경제 만족도 | 8.367 | .001 | 587.035 | .000 | .831 |
| 친구 및 대인관계 | 3.945 | .021 | 524.762 | .000 | .815 |
| 신체 및 정신건강 | .120 | .537 | 146.758 | .000 | .740 |
| 직업 및 하루일과 | 4.566 | .045 | 1205.235 | .000 | .868 |
| 자아감 및 | | | | | |
| 일반적인 | 23.712 | .000 | 1899.971 | .000 | .891 |
| 삶의 만족도 | | | | | |

4. 논 의

이 연구는 3개월간의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회 복지 체계 등의 제도적 관점에서 문화 공유프로그램의 활성화로 결혼이주여성이 자국문화와 한국문화 사이에서 문화적으로 배려 받을 수 있으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19]. 또한, 개인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타 문화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21], 이러한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문화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주장하였다[7]. 무용을 경험하는 집단은 개인의 사상과 감정, 즉, 인간의 철학적 사고로부터 연출되는 무용의 역할 뿐만 아니라 무용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생활 속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22]. 또한 [23]는 결혼이주여성의 무용 교육을 통해 문화적 충격을 해소하고 한국 문화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24]의 연구에서는 무용 참여자는 낙천성, 감정 통제력, 자제력이 유의미한 차이로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15]의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문화차이’가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보고되는데, 무용 참가와 지속행동에 따라 불안 요소를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4].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문화수업의

일환으로 제공된 한국무용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와의 충돌에서 오는 문화충격, 문화 피로 현상을 감소시켜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사회적지지, 즉 무용활동 프로그램참가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여 사회적 지지로서 무용 활동 프로그램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과 같은 사회적 연결망이 있을수록 낮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10], 이러한 모임을 통한 상호작용은 결국 생활만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2].

[25]의 연구에서도 중년 여성들의 한국무용 참가경험과 생활만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무용 참가 집단이 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6]은 한국무용에 참가한 노인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생활만족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이 있으며, 무용활동 그 자체가 생활만족도를 충족시켜주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여 본 연구결과를 같은 맥락에서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무용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직면하는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으로 인한 생활만족의 증진 효과를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한국무용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이들에게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적응에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이 연구는 한국전통무용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국무용활동프로그램 참가집단과 비참가집단 각각 24명과 30명을 표집하였다. 이를 통해 획득된 데이터는 t-test와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무용활동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한국무용활동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둘째, 한국무용활동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무용활동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앞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에 관한 제언은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에게만 주목하는 무용 프로그램에서 발전되어 아이나 남편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적 무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간 유기적 관계에서 오는 무용의 순기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이들이 뿌리내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들의 생활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변인을 밝혀내는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References

- [1] IOM, Trade and Migration, 2003.
- [2] Hankyoreh, <http://www.hani.co.kr>, 2007.
- [3] Statistics Korea, Statistics for Immigration bureau, 2009.
- [4] Yang, O, K., Song, M, K., & Lim, S, W, A study on acculturation stress of internationally-married female migrants in Seoul,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1), 137-168, 2009.
- [5] Williams C. L,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r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6(6), 1991.
- [6] Berry, J. W., Marginality, stress, and ethnic identification in an acculturated Aboriginal commun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 17-22, 1970.
- [7] Shin, M, J, Effects of a group art therapeutic on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on in Filipino migrants women, Korea Arts Therapy Institute. 6(2), 2006.
- [8] Hong, S, H, A study on leisure activities and leisure constraints of housewiv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1990.
- [9] Bohnke, P., Does society matter? Life satisfaction in enlarged Europe. Social Indicators Research. 87, 189-210, 2008.
- [10] Jang, E, 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cultural identity and the social relation network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10.
- [1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study on secondary school teacher training and re-education for vitalized culture and arts educat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5.

[12] Kwon, M, K, Exploration of a task in multicultura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2007.

[13] Jang, H, S, Effects of a dance educational program on a cultural adoption stress and a physical efficacy of immigrant wiv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10.

[14] Shin, H, S, Oh, S, I, The relationship of participation satisfaction, leisure flow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life dance. Korean Society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1(30). 951-962, 2007.

[15] Lee, J, E, The relation between taking-lect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students attending a social-education dancing lectur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6(2), 2003.

[16] Kim, Y, J, Analysis and experience of the traditional dances in immigrant women of rural are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07.

[17] Lee, S, J, Relations between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belief system, social support of internationa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1995.

[18] Shin, K, Y, A study on the acculturative stress factors and social welfare intervention of migrant work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inra University, 2006.

[19] Baek, E, R,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ng quality of life of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2003.

[20] Choi, H, A study on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Chinese migrant .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 2008.

[21] Park, H, J,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social d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09.

[22] Lee, S, L, The relationship bewteen Korean traditional dance participation,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old female pers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2004.

[23] Choi, H, Multicultural citizenship of Korean. National Identity and NGO. 5(2), 2007.

[24] Lee, Y, H,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the Vietnamses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 focused on social ca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2007.

[25] Lee, Y, J, Muticultural education policy analysis for families : international marriages of migrant women and foreign work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9.

[26] Jeong, K, S, A study on health condi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woman participated in the Korean dance ac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aw Women's University, 2006.

이 문 숙(Moon-Sook Lee)

[정회원]



- 1999년 2월 : 충남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체육학석사)
- 2010년 8월 : 충남대학교 체육학과 (이학박사)

<관심분야>

여가 및 (치료)레크리에이션, 특수체육, 여가사회심리

이 형 일(Hyung-II Lee)

[정회원]



- 1991년 2월 : 연세대학교 체육학과 (체육학 석사)
- 1998년 3월 : Ohio State Univ. 문화연구학과 (철학박사)

<관심분야>

스포츠사회철학, 스포츠인류학

이 정 주(Jung Joo- Lee)

[정회원]



- 1999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 2011년 2월 : 선문대학교 체육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여가, 스포츠사회학, 체육철학

윤 민 숙(Min-Sook Yoon)

[정회원]



<관심분야>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사회학

김 상 현(Sang-Hyun Kim)

[정회원]



- 2007년 2월 : 충남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사회체육학 석사)
- 2011년 현재 : 충남대학교 체육학과 박사과정 중

<관심분야>

특수체육,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